

低能力牛 早期淘汰가 収支均衡에 미치는 영향

建國大 畜産經營學科 教授
經濟學博士 柳 濟 昌

目 次

1. 酪農經營의 目標
2. 酪農所得増大의 方案
3. 低能力牛 淘汰의 基準
4. 經營改善과 果敢한 淘汰
5. 高能力牛 生産과 確保

1. 酪農經營의 目標

(1) 公經濟的 目標

酪農經營의 主産物은 우리 人間에게 필요한 114가지 營養素가 豊치진 「補藥」인 牛乳이다.

國民들의 食生活을 理想的으로 改善시켜 頭腦組織의 發達, 身體條件의 成長, 스테미나 넘치는 健康, 위암으로부터 해방, 長壽保障을 시키는 牛乳를 生産하는 酪農은 國民들의 需要에 充足할수 있도록 良質의 牛乳를 生産供給하는데 公經濟的 目標을 두어야 한다.

특히 酪農은 이 地球上의 모든 企業中 가장 우리 人間에게 高貴한 安全食品을 生産하는 企業이다.

그러므로 酪農經營人은 自負心을 갖고 時代의 使命感을 切實히 느껴야 한다.

(2) 公經濟的 目標

酪農經營은 公經濟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經營體는 維持成長되어야 한다.

이 酪農經營體를 유지 성장 시키는데 必要한 利益을 適正利益이라고 한다.

즉 粗收益에서 經營費를 공제한 所得의 水準이 適正水準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酪農經營의 公經濟的 目標은 適正 所得에 있다.

이 適正所得의 內容은 ① 自己資本의 適正利子 ② 自己土地資本의 適正利子 ③ 自家勞働의 適正報酬, ④ 經營者能力의 適正報酬이다.

2. 酪農所得増大의 方案

(1) 頭當乳量의 増大

酪農所得을 増大하기 위한 첫째 條件은 粗利益을 増大하는 길이다

그런데 粗利益의 80%水準을 차지하는 牛乳 販賣代를 높이기 위해서는 乳價(322원/kg 3.4% 乳脂率이 0.1%加減時 9.4원土)가 行政價格으로 묶여있는 한 頭當乳量을 増大하면 할수록 粗利益은 높아진다.

실제 頭當乳量의 増大가 粗利益과 所得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表1>을

〈表1〉 '82年 收益性 現況 (經產牛 頭當)

(單位: 元)

區分		組收入 (A)	生產費 (B)	經營費 (C)	純收益 (A-B)	所得 (A-C)
飼育規模別	1~4	2,137,336	1,959,621	990,617	177,715	1,146,719
	5~9	2,100,774	1,821,764	1,031,652	279,010	1,069,122
	10~14	2,084,168	1,700,401	1,124,381	383,767	959,787
	15頭以上	2,101,356	1,661,006	1,145,978	440,350	955,378
	平均	2,098,946	1,744,980	1,093,788	353,966	1,005,158
產乳量別	4,000kg未滿	1,666,626	1,615,869	938,271	50,757	728,355
	4,000~5,000	1,970,983	1,729,304	1,061,961	241,679	909,022
	5,000~6,000	2,229,166	1,764,483	1,163,798	464,683	1,065,368
	6,000kg以上	2,463,961	1,820,419	1,109,124	643,542	1,354,837
	平均	2,098,946	1,744,980	1,093,788	353,966	1,005,158

資料: 畜協中央會 畜產物生產費 調查報告 '82

작성 하였다.

〈表1〉에서 보면 經產牛 頭當 純收益(利潤)은 15頭以上 規模層이 440,35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產乳量別 階層에서는 4,000kg미만이 頭當所得 728천원, 6,000kg이상이 1,354천원, 頭當利潤은 각각 50천원, 643천원으로 乳量增大가 經營成果에 至大한 影響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適正規模의 增大維持

우리나라 酪農經營規模는 平均 약 9두로서 아직도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效率的인 經營規模를 適正規模라고 하는 바, 適正規模의 判斷指標는 다음과 같다.

- ① 單位當 平均生產費의 最低
- ② 單位當 平均利潤의 最大
- ③ 經營資本利潤率의 最高

이상의 判斷指標에 의한 83년도 酪農經營의 適正規模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두 이상으로 나타났다.

〈表2〉에 의하면 kg당 牛乳 생산비는 15두 이상 규모가 258.8원으로 가장 낮았고, 經營資本利潤率도 역시 15두 이상의 12.9%로서 가장 높았다.

適正規模는 牧場經營與件에 따라 15두 이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概念은 아니지만 自己經營要素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해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表2〉 '83年度 酪農經營規模別 收益性分析 (經產牛頭當)

(單位: 千원, %)

經營規模	1~9	10~14	15頭以上
粗收入	2,320.8	2,308.9	2,300.7
經營費	1,171.0	1,245.7	1,292.4
生產費	1,838.6	1,680.6	1,672.4
所得	1,149.6	1,063.2	1,008.3
利潤	482.2	628.3	628.3
經營資本	5,168.4	5,203.7	4,857.7
所得率	49.5	46.0	43.8
利潤率	20.8	27.2	27.3
經營資本回轉率	0.45	0.44	0.47
經營資本利潤率	9.3	12.0	12.9
kg當生產費(元)	287.48	261.63	258.80

(3) 經營者의 節減

所得=粗收益-經營費의 等式이 成立되므로 所得增大를 위해서는 粗收益增大는 勿論 經營費의 節減이 要求된다.

〈表 3〉 '83각국의 두당 산유량

	(kg / 연간)				
구분	한 국	미 국	영 . 국	서 독	일 본
유 량	4,745	5,709	5,031	4,824	5,543

(일본국유업연감)

3. 低能力 牛 淘汰의 基準

人間社會에서도 人間の 存在價値는 세가지로 區分한다.

- ① 꼭 必要한 存在
- ② 있으나마나한 存在
- ③ 있어서는 안될 存在이다

위에서 조기도태의 대상은 ③이고 접차는 ②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간다.

젖소의 경우는 우유를 생산하고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젖소로서의 特性을 갖지 않으면 과감히 淘汰해야 하는데 具體的인 基準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乳量이 損益分岐點(利潤)生産量이하인 소
各 酪農牧場마다 損益分岐點 乳量은 다르기 때문에 斷言은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平均 損益分岐點 乳量(4,500kg以下)

(2) 自己牧場의 乳量順位 2/3以下인 소

(3) 疾病이나 事故로 繁殖障害에 있는 소

(4) 乳房炎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완치가 안되는 소

필자가 '76년도에 서울地區, 大邱地區, 釜山地區의 젖소 두당 損益分岐點(利潤)牛乳生産量을 產出한 결과 서울 地區의 平均은 14kg/日, 大邱地區 15kg/日, 釜山地區는 13kg/日으로 나타났었다.

各 地區別로 경영여건에 따라서 損益分岐點 生産量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요즈음과 같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牛乳販賣變化比率이 80% 수준에 와 있는 현실에서 牛乳生産量은 절대적 比重을 차지하기 때문에 利潤損益分岐點을 中心으로 淘汰를 實施해 나갈때 우리나라 酪農經營은 安全을 期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4. 經營改善과 果敢한 淘汰

乳量增大는 所得增大와 比例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現實을 인근 酪

農國과 비교해 보면 〈表3〉과 같다.

우리나라 평균 두당 산유량의 4,745kg인데 비하여 일본이 5,543kg으로 우리보다 800kg이나 더 生産하고 있고 美國은 1,000kg이나 많이 生産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평균 8,000kg 수준이라고 하니 우리보다 약 2배를 生産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乳量增大가 不可能한 것일까?

해마다 기술의 향상은 눈에 보이는데 무엇때문에 '77이후 '86오늘에 이르기 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젖소들은 평균유량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인 근친번식의 요인과 종축개량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선진된 낙농가는 대규모 경영에서 평균 7,000kg이상, 가족적인 전업규모인 30두 규모에서 경산우 15두 평균유량 8,200kg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낙농경영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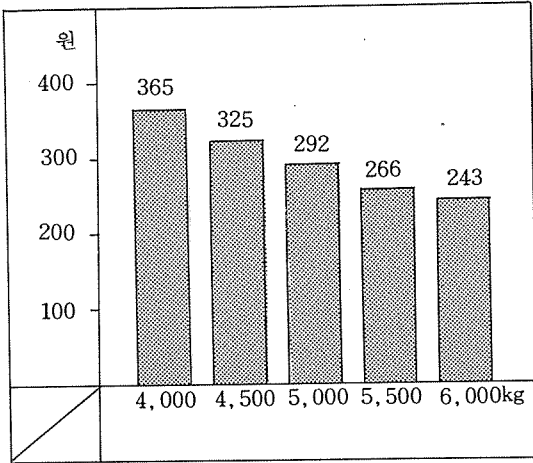
(한국축산경영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경영자 사례발표)

이러한 선진낙농가는 능력이 저조한 소들은 果敢히 도태하였고, 近親繁殖을 하지 않도록 정책이용에 빈틈없는 주의를 하였으며 그 소의 유전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양관리, 환경의 개선, 자급사료기반의 구축 등 낙농 경영의 기본적인 전략을 철저히 세워 실천한 경우이다.

牛乳生産量이 많다는 것은 kg당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첫째 조건이 된다.

종축개량과 과감한 도태에 의해 두당 유량을 증대함은 kg당 이윤의 크기를 높여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表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表4〉 산유량별 우유 kg 당 생산비



자 료 : 농수산부 축협중앙회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00kg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kg당 365원이란 비싼 값으로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kg당 322원을 받고 판다면 kg당 43원씩 적자를 내야하고, 4,500kg의 젖소는 kg당 3원씩의 적자를 내기 때문에 4,500kg 수준이 利潤收益分岐點 임을 알 수 있다.

6,000kg 유량수준을 4,000kg水準과 비교할 때 122원/kg의 차이가 생긴다.

필요없는 젖소는 미련없이 淘汰하고 능력이 우수한 젖소는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한다.

5. 高能力牛 生産과 確保

酪農經營의 成敗는 能力이 優秀한 牛群을

가지느냐 못가지느냐에 달려있다.

高能力牛를 生産하기 위해서는 水準높은 精액을 써야하며, 高能力牛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윗돈을 주고라도 팔지 않으려는 소를 사야만 한다.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두놈의 低能力牛 보다 이것을 팔아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6,000kg이상 수준의 젖소를 구입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酪農事情은 平均産乳量이 너무 낮으며, 粗飼料 生産基盤이 너무 취약한 상태이고 酪農經營者의 能力도 水準級이 못된다고 생각된다.

酪農經營者는 첫째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目標設定과 信念, 忍耐力, 決斷力, 意識活用등이 요구된다.

둘째,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가족들은(1인당 5병(1kg)의 우유를 마셔야 된다 kg당 원유가격은 불과 322원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깝지 않다.

셋째, 과학적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理論的健康, 넷째 適正目標所得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計劃, 管理, 論理分析을 할 수 있는 經營理論的健康, 다섯째 生産性向上의 기초가 되는 合理技術의 健康, 여섯째 經營體를 유지하는 資本的健康을 지닌다면 經營의 勝者는 당신이 될 것이다.

아시아는 86으로 세계는 88로